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2·19 재·보선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장성터미널에서 장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유세를 듣던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신당-무소속 박빙 접전

민주당 기세 점차 꺾여…부동층 공략 막판 승부수

12·19 재·보선 판세·변수

오는 19일 17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남지역 3곳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주지역 2곳의 광주시의원 재·보궐선거도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간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장성과 장흥, 해남 군수의 경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무소속 후보간 3각 대결 구도로 짜여져 있고 광주시의원 재선거는 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두 후보들을 냈고 무소속의 도전도 거센 상황이다.

각 정당 및 후보 진영의 자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선거를 이틀 남겨둔 17일 현재 기초단체장 재·보선의 전체적인 판세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무소속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장흥과 해남 두 곳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고 장성군수 재선거의 경우 '박빙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신당으로서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여 대선 후보 가운데 정동영 후보가 광주·전남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재·보선 후보들에게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장성과 장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 동정표를 흡수, 예상밖의 약진을 보였던 무소속 후보들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신당 후보들과 백중세를 형성하게 되자 "대선과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질 군수 선거와는 다르다"며 냉철한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 곳 모두에서 신당과 무소속 후보에 조금씩 밀리는 양상이다. 전통적인 지지기반임에도 불구 이인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행보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1~2위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내에 있고 각 지역별로 부동층 및 선거 무관심층이 40~50%에 달해 최종 선거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후보 캠프는 부동층 공략을 막판 승부수로 보고 이들의 표심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이들 3곳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장성과 장흥은 무소속, 해남은 민주당이었다.

2곳 모두 민주당 소속이 당선됐다 중도하차한 광주시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이 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대선과 맞물리면서 막판 표쏠림이 관건이다.

장성군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 2명이 도전장을 던져 4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 청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한종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 김흥주, 무소속 김양수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이다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인 무소속 이 청 후보는 유 전 군수의 조직을 기반으로 군정 성과를 안정적으로 계승할 적임자임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신당 김한종 후보는 '토박이론'과 전남도의원 경력,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전폭적인 유세 지원을 바탕으로 막판 바람몰이를 꾀하고 있다.

장흥군수

대통합민주신당 이명흠 후보에 맞서 민주당 백도선 후보와 무소속 김성 후보가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신당 이 후보와 무소속 김 후보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당 백 후보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노년층 표심을 적극 공략하며 막판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장흥부군수를 지낸 행정가 출신 이 후보는 중앙당 및 지방의원들의 지원, 김인규 전 군수의 조직을 상당부분 흡수해 밑바닥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2천여표차로 석패한 정치인 출신 김 후보는 도의원을 포함 세 차례 선거과정에서 다져놓은 조직을 총력 가동하고 있다.

해남군수

대통합민주신당 김충식 후보가 다소 앞서가는 가운데 민주당 정두채 후보와 무소속 이석재 후보가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5회 연속 재·보궐선거의 악순환이 반복돼 이번 만큼은 인물 본위로 '클린 선거'를 치르자는 기류가 강하다.

해남군 기획예산실장을 지낸 김 후보는 군정 전문가임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아시아자동차 부회장과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정 후보는 행정·경제 양 분야의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3선 전남도의원 출신인 이 후보는 지역 구석구석 속내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의원

광주 동구 제1선거구는 4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양혜령 후보와 민주당 김종민 후보 등 지역 양대 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5파전인 북구 제3선거구는 무소속 송태종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전우근 후보, 민주당 김조순 후보간 선두다툼이 치열하다는 관측이다.

신당 후보들은 다른 정당에 비해 높은 정당지지율과 중앙·지방선대위의 지원을 바탕으로 막판 바람몰이에 나섰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대선과 맞물리면서 우려되는 '묻지마 투표'를 경계하며 인물론·일꾼론으로 맞서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특검 후보 공안·감찰 출신"… 민변 등 반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17일 '삼성특검' 후보자에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천함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등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은 특별검사가 아닌 특검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들의 추천을 반대해 왔으며, 박재승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변협이 이날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 후보에는 공교롭게도 감찰부장을 역임한 변호사와 공안 검찰 출신 변호사가 2명이 포함돼 있다.

정홍원 전 연수원장은 1988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특수부장 검사를 지냈으며 89년에는 대검찰청 강력과장을 거쳐 93년에는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특수부 출신 검사다. 이에 반해 고영주 전 검사장은 95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냈으며 조준웅 전 검사장도 87년 대검 공안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이다.

또 정홍원 전 연수원장과 고영주 전 검사장은 각각 1999년과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다는 공통점도 눈에 띈다.

변협은 "후보자들이 일반 수사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차장 및 검사장을 하면서 휘하 검사들을 지휘하는데 있어 특수·경제사범 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 어떻게 수사할지 잘 알고 계신 분이다"며 특별히 '전공 분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 부조리 수사와 함께 검찰 내에서의 '떡값 검사' 및 최고 권력자에 대한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부분도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 특수·공안 출신이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사제단은 박재승 변호사가 추천 명단에서 제외되고 모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추천됨에 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특별검사로 추천돼 있어 이 중 누구를 선정하더라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대선 D-1 'BBK 동영상' 변수 표심 향배는?

鄭·昌 모두 '막판 대역전' 자신

'BBK 동영상' 공개에 이은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 대선 후보 진영은 막판 대형 변수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느라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각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BBK 동영상과 이명박 특검법의 파장에 따라 많게는 10% 내외의 지지율을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 결과는 물론 추후 정국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육성 동영상' 공개 이후 지지율 추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신당 측은 특히, 17일 국회에서 '이명박 특검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신당 내부에서는 보수표의 이탈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대선 정국이 혼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호남은 물론 수도권 호남 표심이 결집하고 있으며 부동층의 표심도 점차 정동영 후보로 모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서 보수표의 대이탈이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본부장은 비공개 여론조사를 근거로 "BBK 동영상 공개 이후 정동영 후보는 표 이동과 결집으로 상승폭이 매우 가파르다"면서 "투표율이 6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정 후보가 40% 안팎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0% 내외 지지율 요동·보수표 분할 가능성
李 "이탈표 크지 않을 것… 정면돌파로 승리"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BBK 동영상이 대선 막판 터짐에 따라 대역전극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BBK 동영상 공개 및 이명박 특검법 통과 여파로 범여권 지지 표심이 결집되면서 정 후보의 대선 지지율이 30% 선을 넘을 수는 있지만 이명박 후보를 끌어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후보**=과반 득표를 목표로 했던 이명박 후보 선대위는 BBK 동영상 공개 파문으로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동영상 공개와 특검법 통과가 지지율 조정으로 이어지겠지만, 대선 승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는 등 BBK 의혹을 정면돌파한 점이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탈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사건'처럼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동영상 공개 등으로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호남 표심도 움직이는 것 같다"며 "그러나 대세를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며 이 후보가 무난하게 40% 중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BBK 동영상 공개에 이어 특검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30% 후반대의 지지율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BBK 동영상' 공개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민심이 이회창 후보 쪽으로 '유턴' 하면서 선거 막판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 선대위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BBK 동영상' 공개 파문으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선 승리를 일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수표심이 이회창 후보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